



유병재, 박건형, 김진우, 김중민, 김보성, 돈 스파이크, 권현빈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tvN 사범 리얼리티 '착하게 살자'

진짜 교도소 간 예능 ... 첫회부터 논란

범죄자 수감과정 상세히 전달

"신선하다" "너무 심하다"

시청자 반응 천차만별

"감옥은 놀러 가는 곳이 아냐"(네이버 아이디 'asob****')

"웃음기 없는 예능은 낯설지만 교도소에 대한 접근은 신선"(cvb9****)

YG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고 JTBC에서 방송 중인 교도소 배경의 예능 '착하게 살자'는 지난 19일 첫회 직후부터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시청률도 3.487%(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로 나쁘지 않은 기록을 보이며 화제성을 견인했다.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모방, 감옥 미화 등의 비판을 의식했는지 '사범 리얼리티 예능'이라는 수식어를 내세운 '착하게 살자'는 범죄 후 긴급체포, 재판과 수감 등 실제 수감자들이 겪는 모든 절차를 상세히 보여줬다.

배우 박건형과 김보성, 개그맨 겸 작가 유병재, 가수 김중민, 작곡가 돈 스파이크, 워너 김진우, JBJ 권현빈은 범죄 전문가들이 짜놓은 '시험가 매라' 안에서 범법행위를 하고 '진짜 교도소'에 수감됐다.

박건형은 뺑소니 사고를 냈다며 차를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동료의 부탁을 들어줬다가 범인



도피죄를, 유병재와 김진우는 방송 소품으로 사용된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다가 그 불이 산과 천 연기남물을 태워 실화죄를 저지르게 됐다.

"있을 법한" 사례이지만 교도소에 수감됐으니 결과적으로 "어마무시한" 죄가 됐다. 내용 자체가 이렇다 보니 예능임에도 첫회부터 웃을 지점은 거의 없었다.

이에 일부 시청자는 "감옥에서 진짜 하는 건 좀 아니다"(jisle****), "아이들 멤버들한테 이런 짓은 좀 아니다"(ywie****), "예능은 재미 요소가 커야 하는데 소재부터 안 보게

된다"(kues****) 등의 반응을 내놨다.

반면, 신선하다는 평도 적지 않았다.

제작진은 법무부와 교정 당국의 협조를 받아 실제 여주교도소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교도소에 들어간 스타들은 머그샷을 찍고 마약·홍기 등 반입을 막기 위한 항문 검사도 당하는 등 '리얼리티'가 극대화됐다.

같은 소재의 드라마보다 훨씬 쉽고 재미 보이는 감옥 내부, 플라스틱 식기와 양이 적은 식사,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함께 생활하는 실제 재소자의 모습 등에 시청자들은 호기심을 보였다.

"qscf****"는 "교도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좋았다"고, 'asto****'는 "사실적인 것들을 더 부각하면 청소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cvb9****'는 "법이 나 죄명 등에 대해 배울 게 있어서 좋았다"고 감상을 남겼다.

프로그램 연출은 MBC TV '무한도전'에 참여했던 제영재 PD와 '진짜사나이'를 만들었던 김민중 PD가 맡았다. 두 PD는 앞서 "시청자에게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할 기회를 드리고 싶다"며 "작년에 워낙 큰 사건이 많았기에 구속 절차 등 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이 주는 아이러니에서 오는 코믹함은 있지만, 장난 같은 분위기는 최대한 배제했다. 실제 교과 과정을 그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유정 2년만에 안방극장 복귀

JTBC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취업준비생 변신 ... 4월 방영

배우 김유정(19·사진)이 JTBC 새 월화극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로 '구르미 그린 달빛' 이후 약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JTBC는 '오라차차 와이키키' 후속으로 오는 4월에 방송할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에 김유정이 취업준비생 김오솔 역으로 출연한다고 23일 소개했다.

이 드라마는 세상의 모든 아르바이트를 섭렵하며 취업난에 허덕이느라 '청결'은 사치가 된 김오솔과 결벽증이 있는 꽃미남 장선결이 만나 펼치는 로맨스극으로,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JTBC는 "'구르미 그린 달빛', '해를 품은 달' 등 원작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에서 탄탄한 연기를 보여준 김유정이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선택한 작품인 만큼 어떤 연기 변신을 보여줄지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김유정은 "맑고 밝은 오솔이의 에너지와 드라마 자체에 스며든 기운을 잘 전달하고 싶다"며 "시청자들의 지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출은 '개인의 취향', '인수대비',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에 참여한 노종찬 PD가, 대본 집필은 '조선총잡이'의 한희정 작가가 맡는다.

김준호 이혼 "아내와 원만한 합의"

개그맨 김준호(42·사진)가 22일 아내 김은영(44) 씨와 합의 이혼했다.

김준호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김준호가 소속사 JDB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 원만한 합의 후 합의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두 사람이 많은 시간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소원해지게 됐고 성격 차이도 생겨 부득이하게 서로의 앞날을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렸다"며 "김준호 본인 역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많은 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소속사는 그러면서 "김준호는 앞으로도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달라"며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됐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준호는 2006년 3월 두 살 연상의 연극배우 김은영 씨와 결혼했으나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어지며 결국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



는 없다.

김준호는 현재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에서 만형으로 활약 중이며 같은 채널 '개그콘서트'도 이르고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uration.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uration.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on EBS1.

Table with 2 columns: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and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for the date 1월 24일 (Wednesday).